

경륜 3·4착 선수들도 주목

운동 에너지 높은 자력형 선수들을 유심히 봐야
선수의 동기부여·심리적 요인도 지나쳐선 안돼

경륜 경기에서 우승 선수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우승을 놓친 2위 선수에도 아쉬움의 시선이 남는다. 입상권에서 밀려난 선수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전문가들은 “3, 4착한 선수들은 지나칠 수 없는 필요조건”이라고 얘기한다. 단순한 숫자의 서열이 기대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륜은 육상이나 수영 등 기록경기가 아닌 만큼 단순한 숫자서열이 절대적일 순 없다. 희망인지 함정인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경주의 전법은 대략적으로 선행형과 추입형으로 나뉜다. 경륜에선 젓기와 마크라는 전법이 세부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전법의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엇비슷한 운동에너지를 갖추었을 때의 이야기다.

운동에너지 소모가 적은 마크전법에 비해 운동에너지를 나누거나 몰아서 소모하는 선행이나 젓기 전법의 3, 4착이 운동에너지의 역량 면에선 우세한 경우가 많다. 마크전법은 앞 선수의 운동에너지에 약 70% 역량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마크형들이 성적만큼 운동에너지의 역량은 크지 않다.

물론 경주의 성적은 에너지의 역량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복합적 요소의 총체적 결과물이다. 하지만 운동에너지는 성적 향상의 중추 역할을 한다. 실전에서 마크운 역보다 자력형태의 3, 4착에 주목하자.

육상이나 스케이트 경주에서는 거리 손실이 있는 아웃 코너 선수가 인코너 선수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 코너 부분을 포함한 원형경기장에서 불가피한 규칙이다. 경륜에선 고정되지 않고 주행 중 선택되는데 외선주행이 상대적으로 체력소모가 크다.

거리 손실뿐만 아니라 외곽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자전거의 기우는 각도가 커지는데 이 기울기는 자전거에 전해지는 동력전달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다만 외곽주행 선수의 장점이라면 4코너 이후 급경사의 탄력을 받아 내곽주행에 비해 추입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난이도가 높은 외곽주행으로 3, 4착 한 선수는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김동우 마지막 한바퀴 경륜전문가는 “3, 4착의 평가는 실제 팬들의 추리(예상) 시간에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 할 수 있는 선수들의 동기부여나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이 추가될 경우 완성도 높은 베팅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수진 기자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불법스포츠토박 경제 첫 번째 대안 열렸다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스피드 온’ 하세요!

온라인 발매 관련 법안 국회 통과
8월 6일부터 ‘스피드 온’ 서비스
불법스포츠토박 확산 방지 기대

코로나19 장기화로 합법사행성 사업 전체가 유례없는 매출 감소와 고용 위기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불법도박은 더욱 기세를 부리며 커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는 81조 5000억 원이다. 불법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출액을 바탕으로 추정된 것으로 2016년 조사의 70조9000억 원에 비해 약 15%나 늘었다. 실태조사에 따른 추정액이다 보니 불법도박의 특성상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합법사행산업의 매출은 22조 4000억 원으로 불법도박 매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경륜과 경정사업의 매출이 최근 11년 동안 최저치로 이어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다.

불법도박을 종류별로 보면 불법스포츠토박이 20조 5000억 원(25.2%)으로 가장 크다. 이어 불법경륜이 2조4000억 원(2.9%), 불법경정 1조1000억 원(1.3%)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도박 전체의 67%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특히 경륜과 경정의 경우는 90%를 넘고 있다.

●1994년 사업 개시 이후 첫 적자
특히 지난해 몰아닥친 코로나19 사태



경륜·경정이 8월 6일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한다. 경륜·경정 승차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의 화면.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로 인해 경륜·경정 경주가 휴장과 재개장을 반복하면서 매출은 2019년과 비교해 86%나 감소했다. 휴업과 예산절감, 임금 반납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 1994년 경륜사업 개시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물론 각종 공공재원으로 약 10조원을 조성해 사회에 환원해 왔던 경륜·경정사업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됐다.

매출감소는 선수들의 수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활고로 인해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륜·경정 사업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장기휴장에 따른 사업 적자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긴급생활안정금 지원과 무관중 모의경주를 통해 58억 원을 직접지원했다. 휴장기간 중 경기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수 훈련지도관 및 단체보험 등 18억 원을 별도 지원했다.

●28일부터 모바일앱으로 회원 가입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해 공

공재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온라인을 무대로 커가는 불법도박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보다 먼저 온라인 배팅을 시행 중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불법 사행산업의 확대를 견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단은 경륜·경정 사업에 8월 6일부터 ‘스피드 온’(Speed-On)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온라인 발매를 시작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온라인 발매가 가능하게 됐다.

공단은 온라인 발매가 기세를 부리던 온라인 불법 스포츠토박 시장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합법사행사업인 경륜·경정 고객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발매는 불법도박의 폐해를 예방하는 것 외에 온라인 배팅을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 디지털 시대에 맞춘 스포츠와 ICT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 코로나19로 인한 선수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문제 해결, 안정적인 공공재원의 조성이라는 복합적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온라인 발매 시스템은 회원가입, 본인인증, 이용자보호를 위한 건전화 주요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8일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온라인 시스템 가입과 운영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총알급 가속력’...30번, 경정 최강 모터로 우뚝

누적착순점 8.63 순발력·파워 겸비
74번 모터·34번 모터 인기 뒤이어

경정의 승패는 모터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 회차 배정받는 모터 성능에 따라 선수들이 일회일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경정 팬들 또한 최상급 모터 출전 여부가 관심 사항 1순위로 손꼽힌다.

최근 9경주 모터 착순점을 기준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30번 모터다. 누적착순점은 8.63으로 웬만한 조종

술을 갖춘 선수라면 누구든지 입상권을 공략할 수 있는 최강 모터다. 기본적으로 작전 구사에 어려움이 없는 순발력과 파워를 겸비했고 직선 가속력이 총알급이라는 것이 30번 모터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다.

랭킹 2위는 누적착순점 8.00의 74번 모터다. 2020년 43회차 고정환에게 연속 입상을 안겨주면서 첫 데뷔 무대부터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위력이 돋보였던 것은 지난 23회차다. 류석현이 장차해 수요 경주에서 2연승을 거뒀다. 2일차 5경주에서는 스타트 시 보트가 너울에 튀면서 탄



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0.35초를 끊었고 스피드를 앞세워 붙어 돌았으나 3위권이었다. 류해광이 선두로 민영건과 백스트레지에서 2위 경쟁을 벌이는 듯 보였으나 1주 2턴 마크를 전속으로 돌아 나와 단승

에 2위 자리로 올라섰다. 그 다음 가속력을 앞세워 직선 주로에서 류해광을 따라잡았고 마지막 2주 2턴 마크에서 역전에 성공해 3연승으로 경주를 마감했다.

마지막 3위는 34번 모터다. 누적착순점 7.82이며 지금까지 총 11회 출전에 우승 5회, 2착 2회, 3착 3회를 기록 중이다. 첫 조종자였던 기광서의 우승을 시작으로 이창규, 박원규, 손동민에게 각각 한차례 이상의 우승을 안겨줬다. 지난 23회차에서는 이지은이 배정받아 요주의 선수로 물망에 올랐다. 아쉽게도 수요일 2경주 후 엔진이 상로 교체됐지만 최상급 모터의 위용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위니아 초절전 인버터 냉·난방기



- ◆ 초기비용0원 - 최장36개월 장기할부
- ◆ 공장,업소,교회,사무실 무료방문견적
- ◆ 초강력 냉방,난방,제습 능력
- ◆ 저소음 컴프레서 장착으로 실내에서도 저소음
- ◆ 전문 설치팀이 원하는 일자에 방문설치
- ◆ 본사전국유통망에 더욱 확실한 A/S
- ◆ 절감된 전기료만으로 기계값이?!

냉난방기 전문판매기업 소선공조 상담문의 ☎ 1577-9486 (전국 어디서나 무료)